

韓國에서의 近代建築의 發展

◇이 論文은 村松貞次郎(現 東京大教授) 退任記念을 위한 國際學術發表會(主 題: 東아시아의 近代建築)에서 筆者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筆者의 他界(1985. 11. 28)로 崔康勳助手(日本政 大)가 대신 발표한 것이다. <편집자>

尹 一 柱
(前成均館大 건축학과 교수)

韓國은 오랜 쇠국 끝에 아무 수용태세도 갖추지 않은채 타율적으로 유입되는 西歐建築을 받아들여야 했고, 日本의 점령으로 인하여 韓國人의 창작에 의한 건축이 실현되기까지는 4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開化後, 技術을 輕視하는 풍조와 專門教育을 억제했던 日本의 植民地 教育政策에 의해 專門教育을 받은 韓國人이 一家를 이루어 창작활동을 하게 된 것은 겨우 1920년대 말의 일이었다. 그런데 開國後 사오십년 동안 外國人의 솜씨로 세워진 건축을 韓國建築歷史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建築의 歷史는 社會의 변천과 함께 樣式과 工法이 계승되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나쁜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韓國近代建築 記述上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建築의 變遷過程을 一般 歷史와 관련시켜서 旧韓國時代, 日帝時代, 解放後期로 구분하고 各期를 다시 건축의 양상에 따라 前後期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는 건축의 변천이 政治·社會의 歷史와 깊은 관계가 있음(특히 韓國에 있어서)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執筆함에 있어서 歷史의 用語와 固有名詞는 韓國에서 쓰이는 대로 記述하였고 필요에 따라 괄호속에 주석풀이를 하였다.

◇朝鮮朝末의 西歐式建築

●開化初期 洋館의 流入

韓國의 문호개방은 日本의 압력에 의한 것이니 만큼 洋風建築도 日本을 통하여 처음으로 유입된 것은 당연하다. 丙子修好條規(江華條約)에 따라 釜山(1876년), 元山(1880), 仁川(1883)의 순으로 開港했는데, 1877년 1월에는 이미 釜山 日本租界地가 설정되어, 旧倭館(和館)을 중심으로 한 11만평의 土地에 日本人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日本人 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管理를 위하여 日本側이 처음 세운 것이 釜山 日本管理官廳이었다. 倭館時代의 館守家를

힐고, 그 자리에 1879년 3월부터 同年 10월까지 지은 이 건물이 洋風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지금 判明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당시 日本은 擬洋風이기는 하나, 西歐 建築術을 터득하고 있던 시기인 만큼, 그 건물도 木造의 洋風에 準한 것으로 추측된다.

확실한 洋館建築의 출현은 1880년부터의 日本領事館 내지 公使館 建物이다. 1880년에는 前년에 締結했던 元山開港豫約 7款에 의해, 元山埠頭建築과 함께 同年 11월에는 大倉組가 시공하여 洋風 2층의 領事館을 지었다. 이것은 木造 2층 건물이고 擬洋風으로 생각된다. 釜山의 管理官庁이 洋風이 아니라면 이것은 韓國 최초의 洋館이 되는 것이다. 이보다 3~4년 늦게 인천(1883), 서울(1884), 부산(1884)에 日本領事館 또는 公使館이 거의 동시에 세워지는데, 이것들은 모두 비슷한 규모의 木造 2층 건물로서 르네상스양식에 가까운 擬洋風の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1884년 10월에 준공한 서울의 日本 公使館은 竣工 1개월 후인 12월 7일의 甲申政變으로 燒失되었지만 서울 최초의 2층 洋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위에서 列擧한 日本의 領事·公使館 등은 1890년대에 세워진 南山의 日本 公使館(1893년경, 日帝時 1926년까지 總督官邸), 現新世界百貨店 위치에 세워진 日本領事館(1896년, 1926년까지 京城府庁) 등과 더불어 일연의 日本外交 계통의 公館建築이다. 당시는 日本 自体는 工部省에 雇用된 西歐人 技術者에 의하여 公共建築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80년대 초 韓鮮政府 自体도 그 나름대로의 의욕적 사업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들은 兵器廠(1884), 典園局(1886) 등이다. 兵器廠은 그중 한棟만이 남아있는데, 솟을 지붕의 벽돌 單層이다. 최근 修理中 발견된 上梁文(棟上文)에 의하면 中國의 構造法을 모방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西洋式에 준하는 것이다. 典園局은 日本人의 施工에 의해 벽돌造 單層의 建築郡 이었다.

이 건물들은 韓國에서 工場建築의 효시라 할 수 있다.

韓國에 최초로 진출한 日本을 뒤따라 1880년대에는 歐美 여러나라들이 차례로 外交를 맺고, 開港地의 租界地를 중심으로 民間人이 유입하게 되었는데, 서울의 南山기슭과 釜山의 現 光復洞에 日本의 家屋이 많이 세워졌으며, 仁川에는 淸國 거리가 형성되어 갔다. 그러한 추이와 함께 들어온 外國商人들의 건물이 나타났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獨逸人 경영의 仁川世昌洋行 社屋과 日本人 경영의 仁川租界內 大佛호텔이다. 前者가 1884년경, 後者가 1889년 준공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건물은 같은 무렵에 세워진 日本의 木造公館과는 달리 벽돌 건축이며 世昌洋行은 아케이드를 前面에 둔 別莊風의 건물이고(韓國戰爭時 파괴), 大佛호텔은 중앙 입구에 페디먼트를 올린 2층의 유럽식 건물이었다(1978년 철거).

西歐諸國과의 修交와 더불어 들어오게 된 新舊兩基督教은 中世洋式的 건축을 도입했다.

美國에서 들어 온 監理教는 貞洞을 중심으로 教會와 學校를 세우기 시작 1886년에는 培材學堂講堂(校舍를 말함, 1932년 철거)를 宣敎師의 지도로 세워졌는데, 후에 內務衙門 技師였던 沈宣碩이 都邊首로 일하였다. 窻(隅石), 窓門아치, 파라펫트 등에 石材를 쓴 벽돌 單層建物이었고, 중앙에 페디먼트, 開口部는 바스케트 아치를 사용하고 있다.

1900년대 前後의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건축은 天主教 시설일 것이다. 韓佛條約(1887)이 체결되자 地下에 숨어있던 佛蘭西人 聖職者들은 용지를 매수하여 1890년에는 鍾岷(지금의 明洞언덕)에 벽돌造 2층건물의 主教館(現存)을 세우고, 1892년에 龍山의 神學校와 藥岷聖堂(現 中林洞 聖堂)을 준공하는 한편, 鍾岷(明洞) 聖堂을 착공하였다. 明洞聖堂이 같은 무렵 貞洞 일대에 세워진 近世風의 外國公館과 대비되는 中世 고딕양식으로 우뚝솟게된 것은 당시로서는 一大驚異였다. 다른 건물들이 外國產 벽돌을 도입한 것임에 반하여 明洞聖堂과 그의 다른

일연의 건축에서는 그 막대한 수량을 기와 工으로 하여금 기와를 굽도록 하여 自作自給하였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淸日戰爭으로 일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着工後 7년만인 1898년에 준공하였다. 450여평의 면적을 가지는 라틴 十字形 三廊式으로서, 붉은 벽돌과 灰色벽돌(磚) 異型 벽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고딕 양식의 디테일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外部보다 内部가 고딕양식의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1880년대에 차례로 修交하게 되는 歐美 各國은 초기에 주로 韓國家屋을 改修하여 사용하다가 본격적인 公使館, 또는 領事館을 짓기는 1890년대에 들어서 부터이다. 이 시기에 주된 것으로는 英國·러시아·프랑스 公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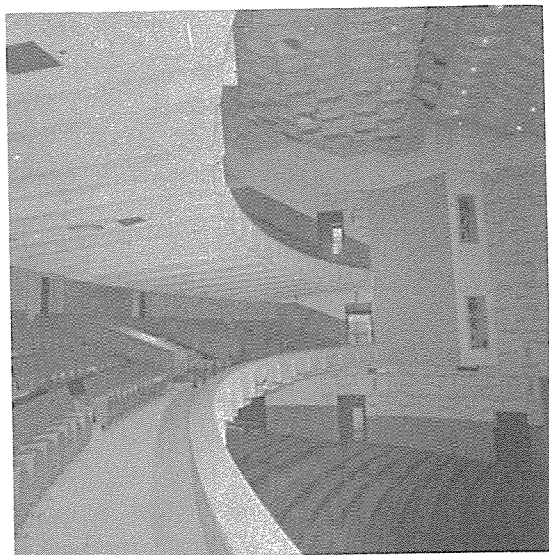
1890년 준공한 英國公使館은 磚과 붉은 벽돌을 섞은 2층 건물로 東側將共 부분을 당시의 큰 도로에 面하도록 하여 페디멘트 아래에 아케이드의 베란다를 가진 우아한 건축이다. 당시의 外國公館으로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다.

韓國戰爭(1950)으로 타버리고 일부 塔屋만 남기고 있는 러시아 公使館도 1890년 준공으로 전해지고 있다. 역시 磚과 벽돌을 섞은 2층 건물의 일부에 塔이 서고, 内外部 모두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이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公使館은 1896년 준공이고, 벽돌 2층 건물, 凹型 만사아드 지붕에 도우머(dormer)窓을 가진 南側에 1, 2층 모두 아케이드를 설치한 프렌치 르네상스의 우아한 건축이었다. 設計는 Lefèvre, 監督은 初代公使 C. de Plancy가 맡았다. 후에 朝鮮總督府가 매수하였고, 1935년에 철거하였다.

이상의 公使館 등은 貞洞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고 異國의 情趣의 거리를 형성하였다.

貞洞에 培材學堂講堂을 지었던 監理敎系統에서는 역시 貞洞에 貞洞敎會堂을 1894년에 착공, 1898년에 준공하였다. 同敎會는 단순한 고딕風의 美國系의 건축으로 多少增築部分이 있긴 하지만 잘 보존되어 있다.



같은 監理敎系統의 敎會로서 1900년에 준공된 貞洞의 梨花學堂(現 梨花女高)의 메인 홀은 벽돌 2층 건물로서 역시 고딕식이다(韓國戰爭으로 없어짐).

이상과 같이 유입된 洋館建築의 출현은 대부분이 他律에 의한 것이었지만 當時民間團體의 發意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獨立門이 있다.

獨立門은 美國 亡命生活者 돌아온 徐載弼의 주도에 의하여 獨立協會의 發起로 세운 것으로 外勢排擊의 상징으로서 事大主義의 表象이었던 慕華館附近에 있던 迎恩門을 철거한 자리에 1896년 11월 착공하여 1897년 11월에 준공한 것이다.

徐載弼 자신이 파리의 凱旋門을 모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규모는 당당한 것이었다. 花崗石 쌓는 방법은 평범 하였지만 礎石(隅石), 아치石과 키이스톤의 독특한 變調, 오오더를 연상시키는 아치 受石柱, 屋上의 欄干 등에는 변화를 주고 있다. 純全히 石造物로서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設計者는 러시아인의 사바틴이라고 傳해지고 있다.

● 旧韓末期의 建築

前記에서 본것과 같이 開國初期 약 20년간의

西歐式 建築流入의 2大經路는 外國의 外交系統과 宗教系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간 중요 도시에는 적지 않은 新式建物이 들어서고, 1899년에는 서울에 電車가 개통되고, 京仁鐵道가 개통되는 등 背景은 어쨌든 表面的으로는 新文物이 相當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列強이 각축하는 사이에 어지럽게 흘러온 國情을 그대로 안은 채 大韓帝國은 20세기를 맞게 되었다.

1900년대 10년간의 건축은 露日戰에서 승리한 日本이 韓國에서 세력을 얻게 되는 1905년을 경계로 그 前後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前半 5년동안은 慶運宮(德壽宮) 內에 세웠던 洋館 建築이 주된 건축이었고, 後半 5년은 日本統監府의 뒷받침으로 추진된 官庁建物이 주된 건축이다. 그밖에 外國公館, 宗教建築, 民間建築 등도 계속 세워졌음은 물론이다.

1897년 러시아公使館에서 貞洞의 德壽宮으로 環御한 高宗皇帝는 德壽宮의 재건과 수리를 命하여 7년간의 계속공사로 여러 殿閣과 門들을 완성케 하였다. 그 공사에는 4, 5棟의 洋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靜觀軒(現存)·惇德殿(現無)·九成軒(現無)·重明殿(現存)·環碧亭(現無) 등이다. 이외에 이것들과 착공시키는 거의 비슷하나(1900) 10년후 완성된 石造殿이 있다.

이 일련의 洋館들이 세워지던 무렵의 政局은 러시아로 치우치던 때이므로 그것들은 러시아 제국의 기술과의 접촉에 의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靜觀軒은 宮內洋館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으로 짐작된다. 洋館이라고는 하나 합각지붕, 베란다에 둘러친 銅製 난간등 東洋의 분위기를 가진 건축이다.

惇德殿은 1901년경 준공, 皇帝가 주로 外國使臣을 접견하던 곳으로서 寫眞에 의하면 石材를 섞은 벽돌造 2층건물의 앞뒤에 円塔이 있는 르네상스식과 고딕식과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1910년대초에 철거).

韓日合邦前 가장 규모가 크고 完成美를 가

진 石造殿은 3층 건물로서 1,200여평이며 이 오니아식 列柱가 늘어서 있는 古典主義 건축이다. 1900년에 착공하여 1910년에 완공 되었다(露日戰爭, 政治情況으로 늦어졌다). 설계는 上海의 英國人 技師 G. R. Harding에 의해 초기의 감독에는 內部(內部省) 技師인 沈宣碩, 러시아人 사바틴, 日本人 技師 小川이 관여하고, 그후 後半은 英國人 Lovell의 설계이다. 본래 內部는 皇帝의 접견실, 거실, 침실 등 로코코식과 일부 純韓國式 방이 있었으나 韓國戰爭으로 소실되었는데, 改修復旧하여 근대식으로 고쳤다.

그외, 1900년대 前半의 주요 건축을 열거하면 日本居留地의 京城郵便局(1900년, 1950년대에 철거), 木浦 日本領事館(1900년, 現 木浦市立圖書館), 天主教元曉路聖堂(1902년, 現存), 獨逸領事館(1901년경, 1971년 철거), 벨기에領事館(1903~1905년, 1980년대 移築), 貞洞손탁호텔(1902년, 1923년 철거), 韓美電氣公社 社屋(1900년경, 1950년대 철거), 세브란스 병원(1960년대 철거), 釜山 日本商品陳列館(1904년, 1984년 철거), 仁川 제임스 존스턴 별장(1905년, 韓國戰爭時 燒失) 등이다.

元曉路聖堂은 韓國人 최초의 神父로서 1846년 순교한 金大建 신부의 유해를 모셨던 聖堂이며 고딕양식. 塔屋은 없지만 언덕의 지형을 이용하여 소규모이지만 무게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韓美電氣會社社屋은 중앙에 円形의 時計塔을 세운 2층 벽돌造로서 2층이고, 窓마다 페디먼트를 올리고, 2층 중앙의 베란다에는 오오더를 세운 典型的인 르네상스양식이다.

서울驛前의 언덕에 있던 세브란스병원은 중앙에 페디먼트의 파빌리언을 두고 兩端에 8角의 Turret을 가진 벽돌 3층의 英國系 르네상스 양식이다.

仁川의 제임스·존스턴별장은 1900년대 초기의 건축중 가장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石造기 와지붕으로 설계는 獨逸人 Rothkegel이고, 당시로서는 樣式主義에 따르지 않은 유일한 건축으로 塔屋등 경쾌하고 抒情的인 수법은 鄉土의 인 것과 Secession的 요소가 결합한 작품을 연

상케 함은 흥미로운 일이다.

韓國에서 러시아와 日本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던 당시, 러시아 세력이 비교적 미치지 않았던 南方의 木浦와 釜山에 日本은 아래의 중요한 건물을 세웠다.

木浦의 日本領事館은 붉은 벽돌 2층의 정교한 건축이었는데 中央上部에 白色의 페디먼트를 올리고, 木造에 白色 칠한 포오치는 경쾌한 구성을 하고 있다. 현재도 内外部 모두 거의 原狀 그대로이다.

釜山商品陳列館은 貿易市場開拓을 위하여 日本人 商業會議所의 發意로 건축된 것이다. 1905년 준공된 이 건물은 釜山地方에서는 가장 최초의 본격적 벽돌造 洋館이다. 붉은 벽돌 3층 건물이고, 설계는 渡辺讓이 담당하였다. 르네상스식을 바탕으로 하여, 正面의 장식을 중요시하고 中世 城館風의 円塔을 덧붙인 절충식 건축이다. 2층까지 뚫린 玄關 아치는 壯重感이 있고, 세부의 시공도 정교하였다(1980년대 철거).

1900년대 前半期를 보내고, 露日戰爭에서 승리한 日本은 그 결과 단독으로 韓國에 개입하고 소위 乙巳保護條約을 맺어 統監府를 두고 韓國의 政治를 요리하기 시작했다.

1906년 2월에는 벌써 서울 南山의 요지를 택해서 統監府庁舎(그것은 木造 2층 건물로 르네상스風의 절충식이었다. 1926년까지 朝鮮總督府庁舎로 사용하였고, 韓國戰爭으로 燒失)를 건축하기 시작하여 다음해에 완성시켰다. 그 시기부터 日本을 통하여 건축이 조직적으로 침투하게 되었다. 즉, 1907년에 맺어졌던 韓日新協約에 의해 日本人을 韓國官吏로 임용하게 되어 소위 次官政治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建築分野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官庁建築을 폭넓게 新建築과 交替하기로 한 日本人들의 방침에 의해 韓國度支部(大藏省에 該當)傘下에 建築所라는 기구를 두고, 1906년 7월에는 日本人 建築技術者를 多數 職員으로 고용하였다. 그외에 度支部 建築所의 촉탁으로 工事顧問에 日本人藏省建築部長인 妻木頼葉, 事務囑記에 失橋賢吉이 있다. 그들은 당시, 日本

大藏官僚로서 官僚建築家의 主峰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乙巳保護條約 이후의 旧韓國 政府의 官庁建築은 日本의 大藏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建築所에서는 獨逸의 기계를 도입하여 附設 벽돌제작소를 1907년에 麻浦 桃花洞에 건설하고 벽돌을 生産官給하였는데, 이는 韓國最初의 본격적 벽돌공장이다.

1907년부터 兩國合併(1910)까지 度支部 建築所의 업무로 세워진 건물은 수 10종에 달한다. (日本人官吏의 官舎建築까지 취급하였다).

이 3~4년 동안에 官庁建物이 속출하여 도시의 식민지의 거리로 바뀌어 갔다.

度支部建築所의 主管아래 세워졌던 주요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度支部庁舎(1907년 10월) : 원래는 議政府(內閣)庁舎로 착공되었지만 施工途中에 韓日新協約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內閣庁舎는 필요 없게 되어 준공 후 용도변경하였다. 內閣庁舎였던 만큼 皇帝의 便殿과 玉座가 있는 議事室도 있었다. 方形平面 内部에 中庭을 가진 벽돌 2층에 스테이크칠, 石積模倣의 건물로 중앙 파빌리언의 돌출과 2위의 도움 등 르네상스식을 나타내고 있다(日帝時 刑事地方法院, 1970년경 철거).

大韓醫院本館(1908) : 內閣직속 병원으로 세워졌던 것으로 붉은 벽돌의 本体는 평범하지만 중앙의 네오바로크식의 時計塔은 우아한 것이다(현 서울대병원).

平理院 및 漢城裁判所(1908) : 벽돌 2층에 스테이크칠로 石造를 모방하였다. 중앙에 도움을 둔 르네상스양식이었다(日帝時 覆審法院, 地方法院, 韓國戰으로 없어졌다).

廣通館(1909) : 銀行과 財政關係의 集會室 겸 용의 건물, 銀行으로서의 기능과 外觀을 가지고 있다. 붉은 벽돌 2층 구조로 石材 이오닉·오더를 붙인 정교한 건축이다(現 商業銀行 鍾路支店).

内部(內務省에 해당) 庁舎(1910) : 준공과 함께 兩國이 合併되었으므로 京畿道庁으로 된 건물이다. 設計趣旨에는 英國 르네상스에 준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半存, 現 治安本部庁舎).

釜山稅關(1910) : 建築所監督係長이었던 岩田五日滿의 설계로 되어 있다. L字型 平面의 구석에 塔屋을 두고 요소에 半圓, 三角 페디먼트를 사용한 붉은 벽돌 2층의 英國系 르네상스식의 아름다운 건축이었다(1979년 철거).

工業傳習所(1909) : 木造 2층, 外壁은 獨逸式 두꺼운 비늘판 붙임의 페인트 칠 마감의 르네상스식 건축(현 放送通信大學)

그밖에 度支部建築所 主管의 주된 건물은 學部(文部省 해당) 庁舎(1908, 現無), 建築所 庁舎(1909, 現無), 度支部印刷局(1908, 現無), 各地方裁判所, 그리고 또 警察署, 京城監獄(1906, 現無), 各地方財務署庁舎, 各港의 稅關 등이다.

1900년대 後半部에 있어서 민간의 건물로서 주된 것으로 鍾路YMCA會館이 있다. 鍾路 YMCA會館(1907~1908)은 붉은 벽돌 3층으로 당시 明洞聖堂과 같이 두드러지는 건축의 하나이다. 중앙에 페디먼트가 있고, 최상층의 窓 주위에는 도오릭·오오더가 붙여졌다(韓國戰爭으로 燒失).그외 주된 것으로 敬新學校本館(1905), 徽文義塾本館(1905), 華山聖堂(1906), 昌慶苑植物園(1905)이 있다.

上記와 같은 洋館建築이 유입되던 중에 韓國在來의 목수들에 의해 韓洋折衷의 민간건물이 나타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라고 추정된다. 그 공통되는 특징은 벽돌벽에 韓國式 지붕을 올린 점과 建具는 洋館의 그것을 본뒀다는 점 이었다. 木造建築의 기둥사이를 벽돌로 매운 경우도 있고, 上層部에 재래의 樓閣手法을 가미하여 발코니를 놓는 등 韓國的인 것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洋風建築術이 미숙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韓洋折衷의 건물이 초기에서 부터 지금까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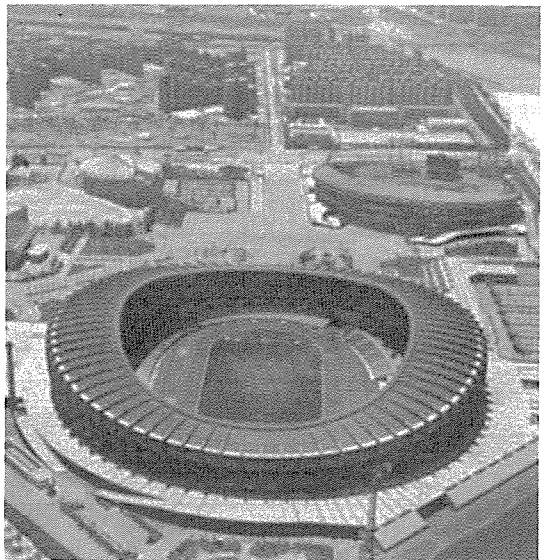
◇日帝時代의 건축

●日帝前半期の 건축(1911~1925)

1910년 韓國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日本帝國은

朝鮮總督府官制에 의해 植民地統治에 편리할 行政과 司法機構를 재조직하여 그 지방의 말단까지 日本人을 官吏로 임용해서 行政을 강화했다. 미리 度支部建築所 및 統監督官房會計課에서 행하고 있던 營繕業務를 總督府는 營繕課에 흡수하여 庁舎建築·公立學校校舍 등의 신축을 추진하였다. 행정기구의 팽창으로 인한 부득이한 추세였을 것이다. 이들의 설계는 물론, 시공도 日本人의 독무대였기 때문에 호경기를 따라 무수한 시공업자들이 韓國으로 밀려와서 번창하였다. 官民의 日本人技術者가 증가하여, 1922년 4월에는 122명의 회원으로 朝鮮建築會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창립 당시의 韓國人會員은 한 명 뿐이었다. 1920년대 前半期에 가입한 韓國人은 15명 정도이다. 거의가 官僚技術者로서 주로 高等工業學校出身의 20대 청년들이었다. 따라서 개인적인 설계는 없고, 20년대 말부터 退官한 사람들에 의한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日帝前半期の 건축은 官庁建築이 절대 다수였으므로 日本自體의 조류에 준하여 樣式主義를 채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또 植民地官庁建築의 권위를 나타내기에도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過渡期的 형태를 가진 京城府庁(서울市庁)이 착공된 1925년경부터 樣式主義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기간중 세워진 중요한 건축은 다음과 같다.
 朝鮮銀行(1909~1912年) : 辰野金吾에 의해 설계되고 中村興資平이 감독하였다. 石造 2층 兩端에 円塔이 있는 城館風의 르네상스식 건축이다(現 韓國銀行).

朝鮮호텔(1914) : 獨逸人 게·테라란테의 설계로 R·C造 3층 彩藥 테라코타 붙임으로 마감한 네오·바로크식에 Secession이 가미된 우아한 건축이었다(1967년 철거).

京城郵便局(1915) : 前記 朝鮮銀行과 더불어 前面廣場에 도시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벽돌과 石材를 혼용한 3층 사라센식이 加味된 르네상스식이었다(韓國戰爭으로 燒失).

朝鮮總督府(1914-1926) : 1910년대부터 20년대에 걸쳐서 가장 규모가 크고, 日本側이 힘을 들였던 것이 朝鮮總督府이다. 兩國合併初期의 1912년에 벌써 韓國皇帝의 正宮이었던 景福宮內에 總督府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설계가 완성된 것이 1914년, 1916년에 착공되어 1926년에 준공되었다. 설계자로서는 前記 게·테라란테가 顧問과 指導를 하였고, 野村一郎, 國技博 두 사람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總督府建物이 正殿인 勤正殿을 가로막고 正門인 光化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柳宗悅, 關野貞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日帝는 계획대로 강행하였다. R·C구조에 石材를 붙여 4층으로 중앙에 큰 도움을 얻은 르네상스식이다(現 國立博物館으로 改修中).

京城驛(1925) : 비잔틴風の 도움을 올린 르네상스식, 石材 이외에는 타일붙임 마감, 설계는塚本靖이라 전해진다(현 서울역).

京城府庁舎(1926) : 전체적인 형태는 近世風이면서 樣式的 장식이 없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현 서울시청).

이 기간중 官庁建築 이외에 많은 公立學校가 세워졌는데 建築形式, 配置 등은 日本 自体와 같은 유형의 것이었다.

이에 반해서 私立인 梨花學堂(現 梨花女高) 심프슨館(1915), 파이퍼 홀(1923), 延禧專門學校(現 延世大) 諸校舎(1920), 平讓崇實專門(19

20년경) 등은 아메리카 계통의 설계로 고딕식에 준하는 것이다.

그의 民間建築으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雲岷宮李俊氏邸(1912년경) : 벽돌 2層에 스테코 마감의 이오닉·오오더와 터스칸·오오더를 붙인 르네상스樣式(現 德成女大本部).

尹德榮別莊(1917년경) : 石材혼용의 벽돌 2층 건물, 고딕지붕의 르네상스식(1973년 철거).

天道敎中央會館(1918~1921) : 평면과 입체적 구성은 基督敎會堂에 준하는 正面에 塔과 兩翼部를 놓고 있으나 그 형태와 장식은 개성이 강한 표현을 하고 있고, 설계는 1909~21년까지 韓國에서 많은 작품활동을 했던 中村興資平에 의한 것이다.

全州殿洞聖堂(1908~1914) : 붉은 벽돌 건물로 内外部 함께 격식에 합치된 로마네스크식이다. 설계는 프랑스인 Victor Poissnel이 하였다.

朝鮮銀行郡山支店(1922) : 前記 中村興資平의 설계로 Secession風을 가미하는 등, 표현적인 건축이다(現 民間使用中)

聖公會聖堂(1922~1926) : 서울에서 유일한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花崗岩과 벽돌을 교묘하게 혼용한 당당한 모습은 서울 중심부에 風致있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설계는 英國人 S. Dixon이다.

● 日帝後半期の 建築(1926~1945)

朝鮮總督府를 비롯한 官庁建築이 樣式主義로 그 수요를 거의 충족시키던 1925~26년경 부터 건축의 양상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日本資本의 유입에 따른 商業建築의 속출과 세계조류에 의한 合理的 近代主義樣式에로의 건축형태의 변화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樣式主義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古典主義의 德壽宮美術館(1937, 中村興資平 설계), 朝鮮信託銀行(1937), 르네상스·모티프의 貯蓄銀行(1935) 등이 있다.

아메리카식 빌딩이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929년 준공의 京城電氣株式會社 社屋이다. 上端 코오니스와 玄關部分의 近世風 장식 등, 과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같은 시기(1930)에 지은 같은 종류의 것으로 三越百貨店이 있다(現 新世界百貨店). 京城大學諸校舍(1926~28), 京城裁判所(1926) 등은 보다 더 장식성을 탈피한 近代主義에 가까와져 있다.

이러는 동안, 당시로서는 前衛的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1929년 시공된 商工獎勵館이었다. 灣曲한 부지에 非對稱의 立面을 이루고 스틸, 새시의 넓은 窓과 캔틸레버에 의한 발코니, 外觀上 平滑한 面과 直線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 기능을 강조하는 등 모두 근대적인 것이었다.

이에 이어 30년대에는 近代主義的인 건축이 나타나 보급되었다. 그중 주된 것은 千代田빌딩(1934, 現存), 三中井百貨店(1933年, 現存), 旭빌딩(1935年, 現存), 府民館(1935, 現存), 丁字屋百貨店(1939, 現存) 등이 있다.

1930년대의 有數한 건축에 梨花女專(현 梨花女子大)의 여러 校舍가 있다. 보오리스의 설계로 石造 3층건물의 고딕양식인데 모두 잘 보존되어 있다.

日本末期에 가까와져서 日本에서는 國粹主義, 또는 傳統主義的인 시류의 영향이 다소 있었다. 그 경향은 단적으로 말해서 西洋式 壁체에 東洋式의 지붕을 올려 놓은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 예로서는 景福宮美術館(1937, 現 民俗博物館)과 朝鮮호텔(1938, 現存)을 들 수가 있다. 前者는 懸賞設計에 의한 矢野要의 작품이었는데, 韓式 지붕을 없어서 한국적 분위기를 노렸다. 後者는 日帝時代에 가장 규모가 큰 빌딩이었는데, 近代의 壁面に 한국식 첨기와를 지붕난간과 玄關部에 사용하여 전통의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경향의 또 하나의 작품, 泰和基督教社會館이 있다. 보오리스社 소속의 姜沈의 작품이며 石造에 한국식 첨기와를 얹었다. 앞의 두 건물보다 좀더 전통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韓國人 建築家가 출현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인데, 이렇게 늦은 것은 日帝의 教育方針 때문인 것이 많다(京城帝大 이외에는 大學의 설치가 전연 허용되지 않았고, 專門技術者의 양성기관은 高等工業學校 한 곳 뿐이었다. 韓國人

學生의 入學도 제한되어 있었다).

주된 韓國人 建築家와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朴吉童(1899~1943) : 韓國人으로서 처음으로 專門教育을 받은 사람으로서(1919년 京城高工卒) 개척자적 존재로 韓國人 建築家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대표작으로서 和信百貨店(1935~1937, 現存)이 있고 그의 韓靑빌딩, 서울女商校舍, 平壤大同工業校舍, 京城大本部(總督府在職時擔當), 大新商業學校, 以文堂, 주택등 많은 작품이 있다. 그의 경향은 近代主義出現 이후의 작품이면서 경박하게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朴東鎮(1899~1982) : 1926년 京城高工出身으로 대표작 普成專門(現 高麗大學校)本館(1933), 同圖書館(1936)을 비롯해서 中央中學校 本館과 敎會堂 등은 石造의 고딕양식으로서 빼어난 것이었다. 그의 근대적인 건축으로는 朝鮮日報社屋(1935, 現存), 大田地方法院(現存) 등이 있다.



朴仁俊(1892~1974) : 유일한 미국출신의 건축가로서 일본어에 능통하지 못한 만큼 公共建築분야 작품은 거의 없고 주로 歐美式的 주택에 훌륭한 작품이 있다.

그외의 건축가의 작품으로서는 張然采의 全南道道庁 및 道議會(1932), 李天承의 永保빌딩(1937), 金熙春의 東京建物會館(1941) 등이 있다.

이들 건축가의 작품은 國際主義의 경향이 짙은 것들이다.

◇解放(終戰) 後의 건축

이상 열거한 韓國人 建築家들은 비교적 젊은 세대로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國際主義·合理主義라는 모던니즘의 서광을 받아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그들에게는 새로운 건설과 창조의 광장이 열렸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은 그들에게 곧바로 과제를 주지 않았지만, 이미 1945년 11월에는 朝鮮建築技術團(建築學會의 前身)을 결성하고 雜誌「朝鮮建築」을 발간하여 國民住宅設計公募, 韓國語의 용어정비, 韓國建築史의 연구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의욕도 1950년 韓國戰爭 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래도 전쟁중 釜山에서 國軍忠魂塔懸賞設計에는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응모하는 의욕을 보였다.

1953년 7월, 休戰으로 戰亂은 끝나고 그 복구와 건설이 시작된 것이 1954년이다. 해방후의 한국건축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대의 후반에 상당하는 이 시기에는 戰亂의 후유증과 정치적 혼란으로 큰 프로젝트는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戰災復旧를 비롯해서 공장, 상업건축, 교사, 극장 등이 계속해서 건축되었다. 그 조류는 國際主義때의 경향이었다.

1954년부터 1961년까지의 특히 중요한 작품과 작가를 들면 다음과 같다.

水原農大本館(1954, 金熙春), 國營 第1放送局(1955, 金台植), 空軍本部 庁舎(1955, 綜合

建築), 仁荷工大機工館(1955 鄭寅國), 梨大建堂(1956, 姜洸), 東國大本館(宋旻求), 明寶劇裝(1957, 金重業), 空軍士官學校圖書館(1958, 裴基滢), 中央觀象台(1960, 鄭寅國) 등인데, 이들은 國際主義的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는 軍事革命으로 시작되어, 經濟開發計劃과 함께 건축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주요한 작품으로는 市民會館(1961, 李天承), 프랑스大使館(1962, 金重業), 워커히·호텔 各棟(1962, 金熙春), 聖母病院(1963, 金正秀), 藝術會館(1964, 姜明求), 자유센터(1964, 金壽根), 濟州大本館(1964, 金重業), 京畿道庁(1967, 金熙春), 福者記念聖堂(李喜泰) 등이다.

이들 작품은 國際主義的인 것이 기반으로 되었지만, 그 불모로 부터 逸脫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金重業, 金壽根의 작품은 彫塑性이 강하다.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들어 대규모의 국가적 사업이 많아졌다. 중요한 것으로는 國立中央博物館(1971), 國立劇場(1973, 李喜泰), 國會議事堂(1975, 金正秀 外), 世宗文化會館(1978, 嚴德紋), 國立光州博物館(1978, 朴春鳴),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78, 金熙春) 등이 있다. 이들은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전통양식을 가미하고 있다.

그밖에 超高層 빌딩과 그의 많은 건축이 치솟아, 서울시를 비롯 대도시는 국제적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韓國의 建築教育面을 보면, 해방후 1, 2個校에 지나지 않던 大學建築學科는 현재 43個校로 늘어 연간 2,0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세대교차의 기운이 보이던 중, 3~40대의 新進建築家가 대부분의 건축을 담당해 오고, 그 경향도 다양해서 合理主義, 傳統折衷, 포스트·모더니즘調 등 다양하게 꽃피우고 있다. 1985년에는 63층의 빌딩이 준공되고 올림픽을 위한 綜合競技場을 韓國的 趣向으로 건설하는 등 의욕에 넘쳐있다.

(大韓建築學會誌「建築」1986년 3월호에서 전재)